

호랑이 · 사자 새 보금자리 마련

전주동물원, 우리환경개선 완료 두 맹수 생태적 특성 고려 물웅덩이 설치 · 수목 심어 활동 공간도 2배 이상 확대

민선6기 전주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인 호랑이·사자 사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됐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나후된 시설과 동물복지가 고려되지 않은 서식환경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불렸던 전주동물원은 동물들의 본래 서식지 환경에 가장 가깝고 동물복지 환경을 갖춘 행복한 동물원으로 바뀌었다.



3일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전주동물원 호랑이·사자 사에서 동물원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랑이와 사자를 본래 서식환경에 유사하게 조성된 새로운 보금자리로 방사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전주동물원 호랑이·사자 사에서 동물원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랑이와 사자를 본래 서식환경에 유사하게 조성된 새로운 보금자리로 방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호랑이·사자 사 환경개선공사는 전주동물원을 인간과 동물이 공존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생태동물원 대표 모델로 추진해왔다. 시는 각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생태동물원 다올마당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지난 9월 설계용역 등을 거쳐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활동 공간 확장과 수목식재 등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자연스런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들이 놀고 활동할 수 있는 물웅덩이와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호랑이와 사자의 생태적 특성을 배려한 수목 등이 식재됐다. 호랑이 사에는 우리나라 수종인 소나무와 대나무, 조릿대, 수수꽃다리, 사자사에는 초원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잔디, 사초, 락초 등의 수목과 함께 열대기후에 사는 특성을 반영해 온열

바위가 각각 설치됐다. 새 보금자리에는 시베리아 호랑이 새 마리(호강·수호·춘향)와 사자 새 마리(무진·완산·덕진)가 생활하게 된다. 특히 호랑이와 사자의 새로운 보금 자리는 동물들의 활동공간을 2배 이상 넓혔다. 이는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생활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 맹수 탈출 방지를 위해 깊고 넓게 파놓았던 함정을 흙으로 메우고 호랑이와 사자에게 활동 공간을 최대한 제공했다. 또한 안전펜스와 유리 관람대, 수목 차폐를 통해 관람객 안전도 확보했다. 호랑이와 사자의 전시방법도 기존 사람 위주의 안전개방 전시방법에서 수목을 이용한 차폐를 통해 한정된 구간에서만 관람이 가능한 몰입전시방법으로 전환했다. 관람객들도 한정된 구간이지만 멀리서만 관람할 수 있던 이전 방식에서 호랑이와 사자를 유리관람창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 사실감을 높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말 물새장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기존의 조류 개체별 생태를 반영하지 못한 환경에서 벗어나 개체별 서식 환경에 맞는 수목 등을 식재하고 자연 서식지와 유사하게 보금자리를 조성해 새들의 활발한 번식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7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물병원도 신축됐으며 5월 중 엑스레이 등 필수 의료장비를 구축하고 동물 치유 및 동물원의 종보존 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동물은 단순 볼거리가 아닌 인간과 교감하는 존엄한 생명인 만큼 앞으로 동물복지와 생태 종보전을 중심에 두고 동물원을 혁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정부, 황금연휴 열차·고속버스 증편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황금연휴기간을 맞아 대중교통량을 늘리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중교통은 하루 평균 열차 26회, 고속버스 178회, 항공기 13편을 증회하는 등 수송력을 증강할 방침이다. 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11.7km) 등 총 16개 구간(211.6km)은 우회도로로 지정하고 우회안내간판(106개)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완화 방안으로는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8개 노선 21개 구간 224km) 외에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11개 구간 37km)와 고속도로나 들목(IC) 진출구간 임시 감속차로(5개 노선 10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27.4km), 국도는 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촌-호탄(3.28km) 등 2개 구간은 신설 개통한다. 국도 15호선 순천 외사-보성 벌교(9.2km)는 확장 개통한다. 지난 3월부터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1개 차로를 차단한 중부선, 영동선 시

설계공사는 4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하루 동안에는 고속도로(민자포함) 통행료가 면제된다.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4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각종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무료앱과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주 기자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년 연속 대표브랜드 대상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www.jinansam.com
063)433-9767

社告

제3회 전국 폼바 명인전

폼바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회로예락, 정치·사회문제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국의 폼바 명인들을 초청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제3회 전국 폼바 명인전을 열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2016년 5월 13일(금) 오후 4시
- 장소: 전주 풍남문화관 특설무대
-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문의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내일은 어린이날 전북대로 오세요

대규모 행사 '다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지역과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출발 어린이 모험대'로 이름 붙여진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북대 소운동장을 비롯해 도서관, 박물관 등 캠퍼스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버스 행사로 어린이들을 맞이한다. 먼저 대학탐방 프로그램으로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로 건립된 최첨단 도서관과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교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전북대 박물관 등을 대학 버스로 돌며 견학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매주 목요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을 펼치고 있는 박물관에서 이날 어린이들을 위해 '이웃집 토토'를 무료로 상영한다. 이와 함께 소운동장에서는 어린이 레크레이션과 밴드, 댄스, 사물놀이 등의 학생 동아리 공연도 진행되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증정된다. 추억의 게임을 준비한 이동학과부터 학교기업 예코하우징의 친환경 목공교실, 예술교육커플링사업단의 페이스페인팅, 익산캠퍼스에서 이뤄지는 어린이 수의사 체험 등이 풍성하게 열린다. /고민형 기자

전주역 앞 백제대로 마중길 조성 '첫 삽'

전주의 첫 인상을 바꿀 전주역 앞 백제대로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사업착수보고회와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7년 4월까지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전주 첫 마중길에는 도시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심는 명품 가로 숲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3일 유아동 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주민, 주변상가 상인,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850m의 거리에 오는 2017년 12월 완공 목표로 총 60억원을 투입해 명품가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기존 차량위주의 도로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걸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헌수운동을 통해 가로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사)전북생명

의 숲, (사)푸른전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7년 4월까지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헌수운동에는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약 5억 원 정도를 조성해 느티나무(근원지경 25cm이상) 250그루를 첫 마중길에 식재할 계획이다. 기부방식은 1구좌당 2만원, 한그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생명의 숲, (사)푸른전주운동본부에 직접 기부하거나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사)생명의 숲과 (사)푸른전주운동본부에서는 기금조성 및 집행, 참여자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 헌수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뜻을 새긴 (가칭) '시민참여의 벽(상징물)' 등을 설치하게 된다. 시는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첫 마중길에 버스킹 공연장 등 조성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6일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5일부터 8일까지 신문 쉽니다.